

‘시험지 아줌마서 구의원으로...’ 홍미영씨 수기 <4>

비방 제보는 선거초년생인 나와 우리 운동원 모두에게 좋은 자극제가 됐다.

비로소 정치판에 뛰어들었다는 사실을 실감했고 우리의 선거운동 전략과 자세가 너무 안이했다는 반성을 하게 됐다.

안이한 전략·자세 반성
선거인명부도 입수하지 못한

대를 끌어낸다 △중상층 단독주택가 주민들은 비교적 정치의식이 높으므로 후보의 학력과 정책, 공약을 집중 홍보해 관심과 토론을 유도한다. △청년층은 정치적 신념이 뚜렷한 반면 정치불신도 강하므로 출마동기를 설명하고 결단력·행동의지를 전달한다.

마지막으로 십정1동 유권자의

표시한다.

2차 홍보유인물에는 이런 논의를 집약한 6가지 공약을 만화로 담았고 특히 노동자들의 권익대변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강조했다. 문제는 선거운동원이 어떻게 법을 어기지 않고 더많은 유권자들에게 우리의 공약을 밀도있게 전달하느냐였다. 선거운동원 교육을 맡은 김성

유권자 성향따른 공약·접근방식 고심

총무, 운동원 옷차림까지 챙겨 ‘시어머니’ 별명

상태였지만 그동안의 운동정보를 토대로 유권자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가장 인구가 많은 빈민층은 감상적이면서도 여론이 활발히 조성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직접 만나 동질감과 친근감을 표시한다. △일부 연립과 아파트 층은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하지만 주부들끼리의 교류는 많으므로 같은 여성이라는 공감

60%를 차지하는 노동자층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놓고 가장 오랜 시간 고심했다.

대기업 사무직을 포함한 공식 부문 종사자의 경우 숫적으로 많지 않지만 노조 활동 등의 경험도 있으므로 정치적 신념과 소신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막노동 등 비공식 노동자들은 이해관계에 따라 분산돼 있으므로 개별 만남을 통해 동질감을 적극

태 총무와 주민회 회원 김영수씨는 이날 이후 까다롭고 철저한 단속을 해 ‘시어머니’라는 별명을 얻었다. “반드시 정장을 하고 구두를 신어라. 거리에 나서기 전 꼭 거울을 보고 이가 깨끗한지 확인하라. 목소리는 내려 깔지 말고, 인사는 45도 각도로 깎듯이 하라. 언제나 미소를 잃지 말라...”

운동원들은 서로 존댓말을 쓰



우리 선거운동원들의 말쑥한 차림과 예의 바른 태도는 상대 후보들도 모두 칭찬할 만큼 좋은 반응을 얻었다.

고 특히 30여명 대식구의 온갖 허드렛일과 음식을 맡아해준 동네 아주머니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할 것을 새삼 다짐했다.

‘민주지향 주민후보’ 설명

운동이 본격화하자 전화설문과 거리 유권자들 사이에서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한 질문이 들어왔다. “평민당 후보냐?” “운동권 아니냐?”가 그것이었

다. 출마 전에 평민당을 비롯, 야권에서 입당이나 추천 권유를 받았지만 정당의 힘을 빌리는 것이 ‘풀뿌리 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주민회 뜻에 따라 모두 거절했다. 굳이 말하자면 야권 단일후보인 셈이었지만 각자 정치성향이 다른 유권자들에게 한마디로 입장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다. 논란 끝에 ‘민주지

향의 주민대표 후보’로 대답을 통일하기로 했다.

비가 와서 거리홍보를 할 수 없었던 21일 비방의 진원을 정면 돌파한다는 의미에서 상대후보 4명의 선거사무실을 돌았다.

상대후보 사무실 방문

어차피 네후보 중 한 사람과는 4년 동안 함께 구의회일을 해야 할 사이이기 때문이기도 했다. 첫 유세 때 이미 ‘기호 1번’ 홍미영씨를 직접하고 싶다고 선언해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무소속의 최영복 후보는 “다음번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또다시 지지를 나타냈다.

한 후보는 나와 함께 2등당선을 목표한다고 말했고 또 한 후보는 1등당선을 자신하는 듯했는데 다른 남성후보들을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했다.

23일, 2차 유세날이 왔다.

“내 맘도 하나요 기호도 하나요...당선도 일동입니다.”

해님방 어린이들은 일주일동안 연습한 선거운동가를 신바람나게 부르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용원을 보내줬지만 유세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원고 내용에 너무 욕심을 부린 나머지 시간조절을 잘 못했던 탓이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운동기간은 이들, 자탄보다는 마지막 최선을 서둘러야 할 순간이었다.